

# SK, 해외개발 LNG 수출 개가

현대 · 석유공사 · 삼환 컨소시엄 예멘LNG ... 20년 동안 배당

국내기업의 지분 참여로 개발중인 예멘 마리브해의 액화천연가스(LNG)가 미국에 수출된다.

국내기업이 해외 가스전에서 LNG를 개발해 수출하는 것은 처음이다.

예멘LNG는 1984년 SK, 현대종합상사, 한국석유공사, 삼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16%의 지분을 확보한 가스전으로 LNG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판매처를 찾지 못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예멘LNG는 다국적기업인 트랙터벨과 연간 250만톤의 LNG를 20년 동안 장기 공급티로 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랑스의 Total과도 200만톤의 장기도입계약을 진행중이다.

트랙터벨과 Total은 예멘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와 미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예멘 마리브해의 LNG 총 매장량은 2억톤 규모로 계약체결에 따라 생산설비와 파이프라인, 부두설치 등이 진행되며 2009년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출항구와 액화시설, 저장탱크, 수송선박 건조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중공업, 건설, 조선업종 등 국내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된다.

예멘LNG는 프랑스 Total그룹이 43%, 예멘 국영 가스회사가 23%, 헛트오일이 18% , SK 7%를 포함한 한국 석유공사, 삼환기업 등이 총 10%, 현대종합상사 6%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SK는 연간 1000억원, 현대종합상사는 700억-800억원의 매출(배럴당 20달러 기준)을 20년 동안 꾸준히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 관계자는 “그동안 원유는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개발해 수출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해외 LNG 수출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2/17>